

### 한국불교대 포항도량

#### 21일 개원법회 봉행

대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포항도량이 9월 21일 포항학산타워에서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회주 우학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아홉번째 분원 도량 개원 법회를 봉행했다.

포항분원은 한국불교대학의 9번째 분원으로 포항 도심 고속버스터미널 옆 학산타워 6층에 200여 평의 규모로 마련됐다.

행사에서 우학 스님은 "포교 여건이 열악한 포항을 불국토 건설의 전진기지로 삼고자 포항분원을 설립했다"며 "불자들이 수행정신을 통해 자비심을 가꾸고 봉사하는 도량으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054)727-8228

손법천 대구지사장

### 대경풍경소리 10년

#### 용연사서 사진전

대구경북 풍경소리(대표 상원, 대구 용연사 주지)는 9월 19일 용연사에서 창립 10주년 기념사진전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보성선원 한복 스님이 인도여행을 통해 부처님 성지 등을 돌아보며 작품화한 사진들이 '인도성지 그리고 인도불교'를 주제로 전시됐다.

상원 스님은 축사에서 "풍경소리는 사람들이 정신적 안정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때, 대중의 청량제 역할을 하며 법음을 전해왔다"며 "말 없는 포교의 선봉자로, 문화 포교 단체로서 문화를 계승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바로 알리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연사 전시를 마친 사진들은 대구 동화사 등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 인재불사 요람, 명문 전통 잇자

## 대구 능인중·고교 개교 70주년, 은혜사 입구에 설립기념비

일본강점기 불교계 선각자들에 의해 세워져 사학명문으로 자리매김한 대구 능인중·고교가 개교 70주년을 맞아 기념비를 제작하고 제2의 웅비를 준비한다.

학교법인 능인학원(이사장 종광)은 10월 9일 오전 11시 개교지였던 영천 은혜사 입구에서 학교설립기념비 제막식을 개최한다.

기념비 설립에는 능인학원을 비롯해 은혜사, 능인총동창회, 능인중·고교가 주체로 참여했다. 능인학원 등의 인사가 참여해 꾸려진 건립위원회에는 이사장 종광 스님과 박명호 총동창회장을 건립위원장으로 은혜사 총무국장 보림 스님, 능인학원 사무국장 일통 스님, 김상기 총동창회 운영위원장, 강상득 총동창회장, 김영현 능인중 교장, 이종서 능인중 교감, 양근식 능인고 교장, 조상승 능인고 교감, 장영진 능인중 운영위원장, 김일부 능인고 운영위원장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건립위 간사로는 김삼만 능인중 교학부장과 이은진 능인중 행정실장, 김홍석 능인고 행정실장이 참여했다.



10월 9일 능인중·고교 개교지에 세워질 표지석 전면의 모습.

제막식에 세워질 기념비 앞면에는 '민족 사학의 요람 능인중·고등학교 개교지'라 새겼고, 뒷면에는 '민족 사학의 요람 능인중·고등학교 개교지'라 새겼고, 뒷면에는 '불타장신구원을 건학이념으로 설립된 명문사학으로 길을 걸어온 학교 약사가 기록됐다.

1940년대 영천 은혜사, 대구 동화사, 의성 고운사, 문경 김룡사, 경주 기림사 등의 선지식들은 불교교육과 체계적인 중등 교육으로 민족의 얼을 고취시키고자 1940년 4월 8일 영천 은혜사에 능인중·고교의 전신인 오산불교학교를 개교했다. 이후 1945년 오산농림실수학교를 열고, 같은 해 대구 남산동 교사로 이

전한 이래 1951년 능인고 설립, 1954년 대구 이천동 교사로 이전, 1986년 현재의 대구 지산동 교사에 이르기까지 대구지역 중등교육의 요람으로 소임을 다해왔다.

대구·경북지역 불교계 선각자들이 해안으로 설립한 능인중·고교는 일본강점기에는 독립운동과 민족 계몽운동을 전개했고, 한국전쟁 때는 학도병으로 참전해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섰다. 지금도 주요 영 특임장관을 비롯한 이 학교 출신 6만여 동문들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다.

종광 스님은 "부처님의 육호(玉瓠)에서 나온 빛은 삼천대천세계를 비추듯 능인중·고교에서 배양된 인재들이 온 천하에서 활약하고 있으니 선각 대덕들의 해안은 참으로 밝았다"며 "개교 70주년을 맞아 학교 설립의 숭고한 의미를 알리고자 개교 표지석을 세우게 됐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손법천 대구지사장



성전암 현응선림 상량 대구 파계사 성전암 현응선림 상량식이 9월 15일 봉행됐다. 파계사 현응선림은 정면 7칸, 측면 3칸 구조의 32평 규모로 건립 중이며 10월 중 낙성될 예정이다. 이날 상량한 상량 보에는 파계사 조실 청운 스님이 직접 쓴 상량문이 함께 봉안됐다. 한편, 행사에는 파계사 조실 청운 스님을 비롯해 주지 법광 스님, 성전암 원주 백담스님 등 1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조동섭 기자

## 한가위 달맞이템플스테이

### 서산 부석사서

서산 부석사(주지 주경)는 10월 2~4일 '한가위 달맞이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추석 전날 송편 만들기 등을 비롯해, 당일 합동 차례, 차담(茶談), 참선 배우기, 한가위 작은 음악회 등이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선착

순 30명, 참가비는 성인 7만원, 초등학생 6만원이다.

이외 10~11일에는 '산사음악회와 함께하는 템플스테이'가 열린다. 행사에는 제7회를 맞은 부석사 산사음악회를 비롯해, 자유산행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비는 성인 4만원 초등학생은 3만원이다. (041)662-3824 조동섭 기자

## 마곡사 생태농장 개원

### 23일 생태도량 선포하고 자비 배추심어

공주 마곡사가 '일일부작 일일불식(一日不作 一日不食)' 생태농장을 개원하고 생태도량으로 거듭났다.

공주 마곡사(주지 원혜)는 9월 23일 경내 생태농장에서 생태도량 선포식과 자비의 배추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새 주지 원혜 스님이 사찰 운영을 위해 강조한 3대 지표 중 '지수화풍(地水火風)과 하나 되는 생태도량'을 위해 마련됐다.

생태도량 선포식에 이어 '자비의 배추심기'에서는 7000여 포기 배추 심어졌다. 마곡사는 이 배추를 3개월 동안 가꿔 도농 직거래장터를 통해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고, 사찰인근 불우이웃에게 감정을 담

귀 나눠줄 예정이다. 원혜 스님은 "마곡사가 생태농장을 개원한 것은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는 백장 선사들의 청규를 실천하는 생태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한 불사의 일환"이라며 "앞으로 마곡사 생태농장을 지역 주민과 불자들에게 개방해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동시에 먹을거리를 직접 가꿀 수 있는 체험의 장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9월 23일 마곡사 생태도량 개원식 후 주지 원혜 스님이 대중들과 배추를 심고 있다.

## 영평사 구절초 축제 오세요

### 10월 18일까지 꽃차 시음회·사진전 등

공주 영평사(주지 환성)는 9월 26일부터 10월 18일까지 '제10회 구절초 꽃축제'를 개최한다.

구절초 꽃 축제는 주지 환성 스님이 구절초가 좋아 심은 것이 영평사 인근 산야 3만여 평을 가득 메우면서 자연스럽게 시작했다. 구절초가 피는 가을이면 공주 영평사를 찾는 사람들이 7만여 명 넘을 정도로 이제는 공주 지역의 대표적인 불교축제가 됐다.

구절초는 들국화의 일종으로 순발 등 몸을 덥혀주는 약재와 차, 술의 재료로 쓰인다. 또, 향이 좋아 향수 등 화장품 원료로



공주 영평사 구절초 축제에서 단란한 부녀의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쓰이며 살균 작용 등이 있어 상처에도 사용된다. 구절초라는 이름은 9월 꽃잎이 약초가 제일 좋다는 의미에서 유래했다.

행사에는 구절초 꽃차 시음회와 국수 공양, 천연비누 만들기, 사진전시회, 108배 참회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한편, 매년 축제기간 중 열렸던 산사음악회 등은 신종 인플루엔자의 영향으로 취소되고, 10월 10일 마당극과 11일 공주 지역 음악동호인들의 공연으로 대체됐다. 조동섭 기자

## 옥천불교연합신도회 26일 창립

### 회장 박영학씨

옥천불교연합신도회(회장 박영학, 前 옥천교육감)는 9월 26일 10시 30분 옥천농협에식당에서 창립대회를 봉행했다.

옥천불교연합신도회는 이흥희 국회의원(前 국회 정국회장), 연구학·박효근(前 문화원장)씨를 고문으로 추대하고 옥천군사암에서 회원 5명씩을 추천해 20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했다.

옥천불교연합회(회장 혜월)를 비롯한 원로스님 등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행사에는 창립 대법회에 이어,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보선 스님의 초청법문이 있었다.

박영학 신임회장은 "불법을 호지하는 일에 신명을 바치겠다"며 "베 짜는 일에 인색하지 않은 불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11)455-2652 혜철 충청지사장

## 덕산 스님, 청주서 '직지' 무료강좌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에 관한 무료강좌가 열려 눈길을 끈다.

청원 혜사 주지 덕산 스님은 9월 24일 저녁 7시부터 매주 목요일 청주 삼은교 교통봉사대강의실에서 '직지' 주제 무료강좌를 연다.

덕산 스님은 "직지심체요절"은 대한민국의 자부심이자 청주의 자랑"이라며 "많은 이들이 '직지'의

문화재적 가치에 대해 애정과 관심을 갖고는 있어도 그 내용은 잘 알지 못해 무료강좌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덕산 스님은 1982년 월탄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제방의 선방서 수차례 안거 후 1985년부터 열불수행을 시작해 2007년 <열불산> 등을 저술하기도 했다. (043)297-5115 혜철 충청지사장

시조문학 작가상 수상!!

대우스님 禪詩

## 그대 그리운 날

## 어느 가을날

詩人 대우

어떻게 지내냐는 안부를 묻길래  
세월에 놀라 버리고 떠날 줄 아는  
낙엽을 붙들고 있다고 손 내밀었네  
고요도 몸져누운 드락에 지는 낙엽  
그 무게 얼마인지 궁금함을 눈짓해  
바람에 가서 물어보라 말해 주었네.



법보시 문의 받습니다

생명의 나라 진리의 고향 우주의 주인  
백련학회 백련선원 대우 합성 010-2625-3307

### 대우 스님

- 1959년 출가 입산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교무, 포교, 총무부장, 정화개척 포교원장, 불교방송국 상무, 경찰청 경승실장, 중회의원, 송가대학 이사
- 선운사 본사, 내소사, 은적사, 실상사 주지 역임
- 제29,32대 조계종 총무원장 임후보
- 군종담당관, 향승위원장, 경승단장, 시정자문위원, 방송자문위원, 청소년선도위원, 교정교회위원장, 법사, 불보신문 주필, 한국시학 회원
- 저서: 「길을 묻는 이에게」, 「생사」, 「어둠을 비칠하며」, 「인연있는 이들에게」, 「반야심경」, 「한 생각 쉬면」, 외 다수
- 서울신문사, KBS한국방송공사, 법무부 제정 제7회 교정대상 수상, 대통령상 수상, 국가유공자, 시조문학 작가상